

선교 칼럼 (이은무 선교사)

## 한국 선교운동에서 현지 선교운동으로

교단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 졌던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약 50 년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금년도 빌리 그래함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 된지 50 년을 맞게 되었는데, 당시 100 만명이 한 자리에 모였던 대회는 동 서양을 통 털어 빌리 그래함이 개최한 대회 중에서는 가장 큰 대회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한국 전쟁의 종전이 체결된 지 20 년 밖에 안되었던 한국에서는 100 만이 여의도에 모였다는 것은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한국 교회의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준 대회였다. 그 다음 해에 같은 곳에서 '엑스플로 74' 대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강조하는 대회였기 때문이다. 같은 해에 조동진 목사는 아시아에 있는 한경직, 필립 텡, 찬두라이, 지디 제임스, 피터러스 옥타비아누스 등 교계, 선교지도자들을 모아 아세아 선교협의회 (Asia Missions Association)을 구성하게 되었고, 아시아인들의 선교에 대한 책임과 함께 협력을 강조하는 모임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아시아의 선교를 깨우는 일을 하게 되었고, 당시 서양 위주의 선교가 아시아의 선교의 잠재력을 인식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 영적 각성과 함께 사명을 고취하는 대회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선교를 강조하는 대회들이 만들어 지면서 한국 선교는 코비드 이전에 27,000 명이 175 개 국가에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고 코미드로 인하여 철수 하는 경우, 중국이나 인도에서 선교사들을 대량 철수 하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22,000 명 정도가 선교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자가 모든 것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역시 수자나 데이터인 것은 맞지만 이러한 선교사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의 질적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선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선교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선교의 열매들을 가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사역자들이 만들어지고, 복음의 열정이 불붙게 되는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복음의 역동성이 생겨 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선교의 성숙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있다. 복음의 씨를 뿌려서 지역의 복음화를 이끌어 내는 것,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 전도 종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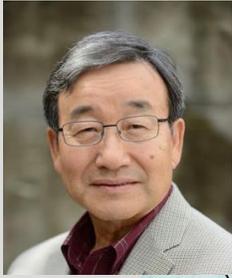
선교사의 일이기도 하지만 현지인들의 지도자들을 만들어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현대 선교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필자는 지난 6월 26일부터 20일까지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태국인들의 컨퍼런스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선교 컨퍼런스가 방콕에서 개최되어 초청을



받고 참석을 하게 되었다. 모두 128 명의 선교사들과 선교사 후보생, 그리고 선교 지원자들이 모여 “인도네시아의 선교시대”를 선언한 것이다. WP(World Partners)라는 선교 단체는 1985 년에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세워진 안중안 신학교(Anjungan Theological Seminary) 의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어 선교단체를 만들었고 인도네시아 전국으로 선교 운동을 확산하는데 큰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14 개국에 30 여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선교지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어렵게 설립된 신학교에 이처럼 성장했는가, 신학교 시작부터 ‘선교는 너희들의 책임이다’고 외쳤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뿌려진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고전 3:6-7)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선교의 바람은 쌍방으로 불고 있다. 더 이상 우리가 주장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는 선교 운동을 보면서 민족을 초월한 선교의 동역정신을 키워 나가는 것이 향후 한국 선교의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 더욱이 우리가 선교를 실망하고 손을 놓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세워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50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놓쳐 버리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선교가 늙어가고 있다는 징조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주신 ‘각 민족을 향한 복’을 놓쳐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는가? 저양 교회들을 보면 선교의 불은 저들에게 신앙과 삶의 가치를 가져다 주었지만 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저들은 심각히 방황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 우리는 그들의 전초를 밟지 않아야 하겠다.



이은무 선교사  
애틀란타 컴벌랜드 신학교 교수  
인니/싱가폴 선교사

